

무등산 군부대 이전·정상 복원 반드시 필요

광주전남녹색연합, 오늘 '국립공원 지정후 평가·개선과제 토론회' 지질·생태 가치 높아...국제플랫폼센터 운영·정상 접근로 개설도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인 무등산이 성공적으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선 군부대 이전과 정상부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제플랫폼 센터 운영 및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설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선 한백생태연구소 부소장은 광주 전남녹색연합이 4일 광주NGO센터에서 개최하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관리 평가 및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3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공군부대 이전과 정상부 복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손꼽았다.

김 부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환경부가 앞장서서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질 및 생태 가치가 높은 정상부의 정밀조사를 위해 군부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향후 공군부대 이전 후 정상부 복원은 2016년 국립공원공단의 설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공군부대가 주둔하는 무등산 정상부 생태계가 회복까지 10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전 정상부 식생과 지형을 파악할 자료가 부족해 복원 목표 설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소장은 이밖에 중봉·장봉재·북봉 일원의 통신시설 이전과 자연 복원, 외래 시설 조립식 복원, 군사 도로 복원 등을 무등산 국립공원의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학부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하게 되는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지되기 위해선 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플랫폼



무등산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과 정상부 복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진행된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 당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플랫폼센터는 전세계를 상대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알리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다.

허 교수는 또, 무등산 정상부근까지 접근로를 개설하는 등 무등산권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슷한 세계지질공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세계를 전도하는 지질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 보전과 관리계획 이행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무등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솔로 미혼남녀라면 꼭 참가하세요”

전남도,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로맨틱 데이’ 미팅 주선

전남도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전남도내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미혼 남녀들의 미팅을 주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젊은층의 이탈로 고심중인 전남도가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미래세대의 결혼과 지역 내 정착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3일 “공공기관 근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전남도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5쌍의 짝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여수에서 전남지역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행사를 열었다.

결혼 적령기인 이들의 건강한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28~40세 미혼남녀 총 39명이 참가

했다.

남성의 경우 선정 예정인원 20명에 61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로맨틱 데이’라는 제목으로 미혼남녀 참가자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커플 레크리에이션, 스탠딩 스피드 데이트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으며, 푸드 테라피 시간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음식으로 표현해보고,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5쌍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사회 전반에 결혼은 필수라는 가치관이 약해지고 남녀 간 인식차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성 간 폭넓은 만남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베, 23~25일 한중일회담 때 한일정상회담도 조율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중국 방문 때 한중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중국 및 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이달 15~17일 인도, 23~25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한 양국 관계 개선이 추진될지가 초점이라고 교도는 전망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3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나고야에서 회담을 갖고 이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일관계는 작년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 넘게 악화 일로를 걷다가 최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한일 협의가 진행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연합뉴스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영결식 3일 강원 화천군 실내체육관에서 육군 2군단 장병들이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영결식을 가행하고 있다. 2군단은 올해 춘천·화천지역 내 죽엽산·북주산·수리봉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유해 21구와 유품 1106점을 찾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78일만에 퇴원...서울구치소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

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질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광주 김장철 농산물·식재료 검사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식재료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지역 마트, 전통시장, 서부·각화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등 농산물 139점,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용 부재료 20점을 검사했다.

김장용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해 120건은 잔류농약 불검출

판정받았다. 무 일 등 19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아세티미프리드 등이 검출됐으나 허용기준 이내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젓갈 등 김장용 부재료는 총질소, 중금속, 대장균 등 품질규격 검사에서 모두 기준 적합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합 김장재료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北, “크리스마스선물 무엇될지 美에 달려”

연말시한 강조하며 북미대화 교착 미국 책임으로

북한은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연말 시한’을 상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리태성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북미 대화 교착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재차 강조했다.

리 부상의 발언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북미협상이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 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 해온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제중대조치를 언급해 연말 전에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송정더샵지역주택조합 조함원 및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당 조합은 시공우선협상대상자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당 조합은 (㈜포스코건설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15일 “마록동 172-3번지”에 홍보관을 오픈하여 추가조합원 모집활동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7일 “(㈜포스코건설”로부터 “광주 최초의 포스코건설 시공예정사”라는 문구를 블로그에 홍보하였다는 황당하고 일방적인 이유를 들어 MOU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 최초의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당 조합의 본 호소문을 작성 이유는 일방적인 해제통보를 수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당 조합의 사업방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유가 될수 없고, 약점으로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조합 사업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협력해 줘야 할 “(㈜포스코건설”은 마치 지금까지 본인들의 회사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개념없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당 조합을 매도하고 있으며, 풍향동 조합원들에게 “양해각서(MOU)해제”를 홍보하며 큰 선의라도 행한듯 당 조합을 조롱하여 당 조합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당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당 조합은 “송정선정지역주택조합”을 시작으로 이미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조합원 스스로 뭉쳐 비대위를 결성하여 여기까지 어렵게 온 조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당 조합원 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를 멈추주시길 바랍니다.

“양해각서(MOU)”는 당 조합이 혼자 체결한 문서가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잘해보자 웃으며 체결한 문서가 왜 지금 “나는 그런적 없다”는 식의 “도의적인 책임”도 회피해버리는 일방적인 문서로 변질 되어 당 조합을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당 조합도 더 이상 (㈜포스코건설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 조합을 이용하는 행위를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께 당 조합은 “양해각서(MOU)”도 없이 무단으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조합이 아니며 억울하다 이 글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당 조합의 올바른지 못한 선택으로 마음 고생중이신 당 조합의 조합원님 및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대행사 뉴에스비개발산업(주)과 함께 바 빠르게 당 조합 사업을 위해 서둘러 책임감 있고 약속을 중시하는 광주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건설사와 함께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게 더욱 더 노력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더샵지역주택조합 임직원 일동
뉴에스비개발산업(주) 임직원 일동